한국조경학회지 43(6) : 25~40, 2015. 12.
J. KILA Vol. 43, No. 6, pp. 25~40, December, 2015

pISSN 1225-1755 eISSN 2288-9566
http://dx.doi.org/10.9715/KILA.2015.43.6.025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분석 연구

김중재* · 이경진**

*공주대학교 대학원 조경환경계획학과 ·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Life Cycle Analysis of Domestic Tourist Areas

Kim, Jung Jae* · Lee, Kyung Jin**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n tourist areas are designated/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Tourism Promotion Act. Since Taejongdae was designated as a tourist area in 1969, a total of 230 tourist areas have been designated/built/operated. It has been 46 years since the first tourist area was designated. According to the Tourism Area Life Cycle by Butler, it is estimated that the flow of the life cycle will be reflected in ups and downs over time.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future tourist areas after analyzing the life cycle stage of domestic tourist areas, by applying the Tourism Area Life Cycle by Butler.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the tourist areas by year, the number of visitors, and data of the target to derive the change transition curve, obtained by dividing the life cycle stages of the tourist areas based on the visitor rate of change. In the analysis results, more than 1/3 of domestic tourist areas are reaching the stagnation/decline stage, and tourist areas such as hot springs and seaside/beach resources show a particularly high ratio of stagnation/decline. The tourist areas that already have reached the stagnation/decline stage will need to analyze the causes for the decline, seek for resolution measures, and introduce new innovative elements. Even 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not sufficient to be used as an absolute standard to decide the life cycle stage of domestic tourist areas, it is considered to be adequate for phenomenologically understanding the life cycle stage of Korean tourist areas. Based on this study, the causes for the stagnation/decline of tourist areas can be revealed while it can be also used as basic research to establish revitalization measures for tourist areas by introducing new innovation.

Key Words: Tourism Area Life Cycle, Type of Tourist Area Resource, Tourist Area Revitalization

국문초록

우리나라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969년 태종대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0개소의 관광지가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다. 최초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이는 Butler가 주장한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따라 영고성쇠와 같은 수명주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Corresponding author: Kyung Jin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340-702, Korea, Tel.: +82-41-330-1445, E-mail: lkj@kongju.ac.kr

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하고, 향후 관광지가 변화 발전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상 관광지별 연간방문객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추이곡선을 도출하였으며, 방문객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관광지의 3분의 1 이상이 정체 · 쇠퇴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온천, 해안/해수욕장 자원유형 관광지가 정체 · 쇠퇴단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체 · 쇠퇴단계에 도달해 있는 관광지는 쇠퇴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혁신요소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현상학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 · 쇠퇴단계에 도달한 관광지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혁신 도입을 통해 관광지의 재활성화 방안 마련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 관광지 자원 유형, 관광지 재활성화

Ⅰ. 서론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라고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지는 1969년 최초로 관광사업진흥법에 따라 태종대, 천동, 고수, 다리안, 대천해수욕장, 구드래, 무등산, 대성관광지가 지정되었으며, 최초 관광지가 지정된지 46년이 지난 현재 230개소의 관광지가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는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다.

최초 관광지가 지정되고, 이후로 전국적으로 꾸준하게 관광지의 수는 증가하였고,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관광지는 관광자원과 물리적인 편의시설,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결합된 지역으로서 시간의 흐름, 관광객의 선호 성향의 변화, 관광지 주변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하고, 관광객에게 외면받기도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그중에 관광지의 물리적 자원 및 시설의 노후화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관광지는 쇠퇴하고, 방문 관광객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반감 및 관광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지의 쇠퇴현상과 변화에 대해 Butler는 "관광지는 관광자원과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으로 시간적 흐름, 관광객의 선호 성향의 변화, 관광지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영고성쇠와 같은 수명주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주장하였다(Butler, 1980).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관광지는 관광객 선호와 욕구 등 관광수요의 변화에 의해, 주변의 경쟁 관광지의 등장에 의해, 관광지의 공급요소인 관광시설의 질이 점점 저하됨에 따라 재개발이 이루어짐에 의해, 그리고 본래의 자연 · 문화적 매력물의 변화 혹은 상실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끊임없는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관광지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관광객 형태도 변화한다는 이론이다(Butler, 1980).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따르면, 최초 관광지가 지정된지 46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46년 동안 관광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지들도 영고성쇠와 같은 수명주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적용, 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방향은 단일 관광목적지 또는 동일 자원 관광목적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연구에 그치고 있어, 모든 관광지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지의 수명주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정, 조성,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 230개 관광지 전체의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하고, 각각의 개별 관광지들이 수명주기 이론의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를 분석해서, 향후 쇠퇴 또는 정체단계에 도달해 있는 관광지의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발전 또는 강화단계의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관광지별 수명주기 단계와 개별 관광지의 관광자원 유형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관광자원의 활용에 대한 한계와 자원별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여 향후 관광지 개발 시 자원 활용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체, 쇠퇴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혁신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한정된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관광지의 재생을 통해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

Butler는 제품주기이론에서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나, 관광지는 일반적인 유형 제품과는 달리 무형의 제품을 통합 개발하며, 그 주변의 통제 가능하지 못한 환경적 요소(자연적,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단계별, 상황별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하기에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utler, 1980).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는 Figure 1과 같이 X축은 시간을, Y축은 관광객의 수를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광지의 개발 정도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단계들은 총 여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탐험(Exploration) 단계는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으로 관련시설이 거의 없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소는 주로 자연적·문화적·역사적 매력물 등이다. 또한 관광자의 유출·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지역의 환경은 관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주민개입(Involvement) 단계에는 관광객이 서서히 유입되고, 이들을 위한 관련시설 및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러한 초기의 관광지 개발을 개입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Butler, 1980). 관광객의 방문유형이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며, 방문객과 현지인간 접촉 수준이 높고, 특히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접촉은 관광 사업자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시기라 하였다(Cromptom and Hensarling, 1987).

발전(Development) 단계에는 수명 주기 상 관광지 구분이 명확해져 차츰 지역의 관광시장이 형성되고,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문화적 관광자원도 점점 상업화 되는 등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낮아지는 시기이다(Butler, 1980). 강화(Consolidation) 단계는 성장이 둔화되는 단계로 관광지의 방문관광객 수가 지역주민의 수보다 늘어나 관광객 위주의 산업형태가 생성되어 주민과의 갈등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하였다(Butler, 1980). 정체(Stagnation) 단계는 관광객 수가 절정을 이루고 관광시설들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숙박업체들은 숙박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하 및 영업활동에 주력해야 하는 한편, 시설의 노후화도 진행된다(Butler, 1980).

쇠퇴(Decline) 단계는 관광객의 유인요인이 쇠퇴함으로써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체류기간도 짧아져 관광지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관광시장의 침체로의 진입을 말한다. 감소의 지속은 관광시장의 축소와 마침내 지역의 관광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적인 매력물의 추가와 비 활용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관광시장을 다시 재활성화(Rejuvenation)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기도 한다(Butler,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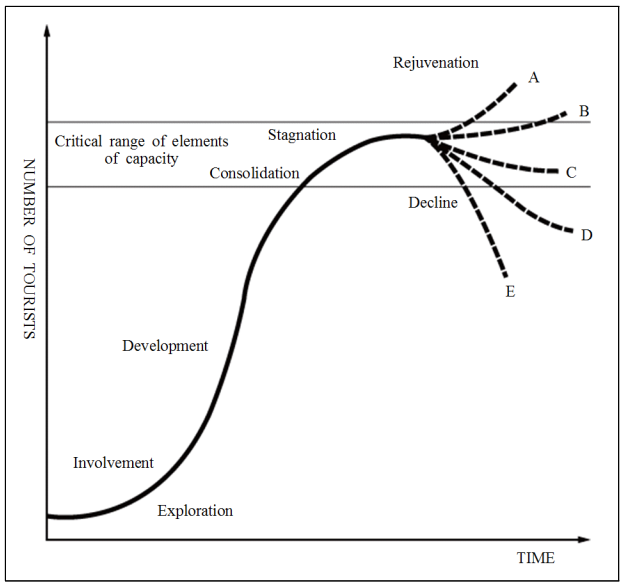

Figure 1. Tourism area life cycle by Butler
Source: Bulter, 1980: 7

또한, Butler는 관광지 수명주기의 단계가 Figure 1과 같이 6단계의 반복적인 S-Curve 형태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임계수용범위(Critical range of elements of capacity)에 도달하면 정체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후 정체단계에서 어떠한 새로운 혁신요소가 도입되지 않으며, C, D, E방향으로 쇠퇴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새로운 혁신 요소가 도입되어 관광객수가 증가할 경우, A, B방향으로 재활성화단계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혁신 요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투여, 미개발자원의 개발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관광지의 진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구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 이후 많은 관련 연구의 발단이 되었다(Cooper, 1994). 대표적으로 Meyer-Arendt(1985)는 Grand Isle 리조트를 대상으로 진화단계를 조사하였으며, 수명주기 조건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성을 파악한데 중점을 두었다. Cooper and Jackson (1989)은 The Isle of Man을 대상으로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하였으며, 재활성화단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Goncalves and Aguas(1997)는 포르투갈의 Algarve를 대상으로 Butler가 제시한 지표를 이용 수명주기단계를 규명하고, 이를 숙박체재수의 평균변화율로 재검증하였다. Lee(2000)는 수안보온천을 대상으로 Butler의 수명주기이론을 적용하여 단계를 규명하고, 침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사례들은 Butl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Butler의 이론이 관광지 수명주기를 설명하는 훌륭한 도구임을 검증하였다.

Lundtorp and Wanhill(2001)은 기존의 사례중심의 검증차

원에서의 Butler 이론을 수학적으로 검증하고, 수명주기단계의 추정절차상의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Park(2003)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제주도 방문관광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명주기 이론을 토대로 미래의 방문객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Butler의 연구로 인해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Jang(2000)은 Butler의 수명주기 이론은 단지 개념적이고 서술적이며, 보편적이어서 오히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용성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이 명확한 개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ppermann(1998)은 지나버린 "때늦은 지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는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점은 가능하나, 미래 예측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hoy(1992), Cooper and Jackson(1989), Haywood(1986)는 관광지 수명주기 추정은 예측모델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만, 관광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다.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미래예측의 어려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구분 정량화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으나, 관광지의 수명주기에 관한 가장 기반이 되는 이론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실증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관광지의 단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2. Polli and Cook 모델

앞서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이 가지고 있는 단계구분의 정량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색된 방법이 Polli and Cook(1969) 모델을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적용한 방법이다. Polli and Cook 모델은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처럼 제품 수명 주기의 유효성에서 처음 출발한 모델로 제품의 수명주기 단계를 변화율에 근거를 두고 단계 구분을 시도한 모델이며, 관광지에 수명주기이론에 적용하여 실증 연구한 사례로 Kim(1993), Cho and Lee(1998) 등의 연구가 있다.

Kim(1993)은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토대로 제주도의 관광지 라이프 사이클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 관광목적지의 단계별 특징과 관광마케팅전략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다. Cho and Lee(1998)은 한국 온천관광목적지를 대상으로 수명주기 단계를 Polli and Cook 모델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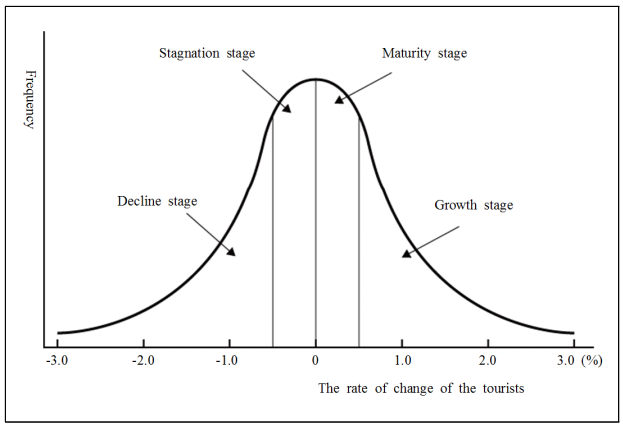

Figure 2. Model of Polli and Cook
Source: Polli and Cook, 1969: 390

Polli and Cook 모델은 관광지의 단계결정을 관광객 수의 변화비율 즉 그 변화비율이 -0.5% 보다 작으면 쇠퇴단계, 변화율이 0.5%보다 크면 성장단계, 0~0.5% 한계 내에 있으면 강화단계, 그리고 -0.5~0% 한계 내에 있으면 정체 단계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2 참조).

Polli and Cook 모델은 한 가지 지표인 관광객수 만으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Haywood(1998)는 관광객수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지출액, 관광사업체의 매상고 및 이윤 등의 변화를 통합해서 관광지의 발달단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광객수 이외의 관광객의 지출액, 관광사업체의 매상고 및 이윤 등의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광객수만을 이용하여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 결정을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2015년 2월 2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 230개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정 관광지는 개발 주체가 공공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개발규모와 개발방식 등이 관광지별 유사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지로 결정하였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국내 관광목적지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러 대상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관광목적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다른 관광목적지와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고, 관광자원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 지정관광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1) 전국 관광지 연간방문객 조사

본 연구의 가장 핵심 자료인 전국 230여개의 관광지 연간방문객수의 시계열 데이터 수집을 위해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과 각 지자체의 통계연보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위해서 관광지별 한 가지 통계자료만 적용하였다. 연간방문객수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980년 이후 관광지로 지정된 대상지의 경우, 지정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3년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의 조작적 정의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탐색(Exploration), 개입(Involvement), 발전(Development), 강화(Consolidation), 정체(Stagnation), 쇠퇴(Decline)/재활성화(Rejuvenation) 총 6단계로 구분하였다(Butler, 1980). 그리고 Polli and Cook은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성장단계(Growth Stage), 강화단계(Maturity Stage), 정체단계(Stagnation Stage), 쇠퇴단계(Decline Stage)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Polli and Coook, 1969). 하지만 Butler의 이론이나 Polli and Cook 모델은 관광지로 조성되기 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정관광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절차를 구분하고 있어, 동일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 관광지 조성 과정을 참고하여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와 Polli and Cook의 수명주기 단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관광지의 조성단계는 별도의 단계구분이 되고 있지 않지만, 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을 참고하면, 관광지 사업 절차는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사업시행,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Butler 이론과 Polli and Cook 모델의 현상학적 내용을 토대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재조정하였으며, 각 단계별 특징을 상기 이론과 법적근거를 토대로 재정의하였다.

3) 관광지별 수명주기 단계 분석

관광지별 수명주기 단계 분석을 위해 첫째,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따라 관광지별 연간방문객수의 변화추이곡선을 도출하였으며, 둘째, Polli and Cook 모델을 적용하여 연간방문객수의 변화비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화추이곡선과 연간방문객수의 변화비율을 토대로 각각의 관광지별 수명주기 단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유형별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검토하여 수명주기 단계와 관광자원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따른 관광지별 연간방문객수의 변화추이곡선은 조사된 관광지별 연간방문객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의 곡선추정방식을 이용하여 관광지별 변화추이곡선을 도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곡선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선형모형, 2차모형, 3차모형, 복합모형, S-모형, 성장모형, 지수모형을 적용 분석하였고, 이중 적합도값인 R^2값이 가장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 변화추이곡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Polli and Cook 모델을 적용한 연간방문객수 변화비율은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Polli and Cook이 제시한 방문객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관광지별 변화율 분포 곡선과 변화비율을 도출하였다. 변화율 분포곡선과 변화비율은 관광지별 조사된 연간방문객수를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변화율을 분석하고, 도출된 1년 단위 변화율을 정규분포곡선과 평균 변화비율로 분석하였다.

관광지별 수명주기 단계 분석을 위해 분석된 변화추이곡선과 관광지 연간방문객 변화비율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구분하였으며, 변화추이곡선으로 전체적인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하고, 변화비율을 통해 재검증하는 형태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관광자원개발매뉴얼(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관광 자원유형별로 구분하고, 자원유형별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 비율을 검토하여 수명주기 단계와 관광자원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Ⅳ. 국내 관광지 수명주기 결과 및 고찰

1.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의 조작적 정의

Butler와 Polli and Cook이 제시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는 국내 관광지 개발 절차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Butler가 이론개발을 위해 적용했던 Scottish Highland 및 도심의 관광시설, 관광지 등은 자연발생적인 관광목적지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관광객 스스로가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탐색단계부터 적용한 반면(Butler, 1985), 국내 지정관광지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개발된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관광지로 발굴된 자원을 토대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단계부터 공급자 중심의 변화과정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지정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Butler와 Polli and Cook의 수명주기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Butler는 총 6단계로 구분하였고, Polli and Cook은 4단계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국내 관광지의 개발 절차는 관광진흥법과 관광자원개발 매뉴얼(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관광지 미지정 단계,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단계, 사업 시행 단계(공사 및 분양), 관광지 운영단계, 관광지 리모델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지 개발 절차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 단계인 운영 단계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utler의 관광지수명주기 단계별 지표와 Polli and Cook이 제시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의 현상학적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 관광지 개발 단계를 세분화 하였다.

국내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 조정 결과, 첫 번째 단계는 관광지 지정 단계이다. 이 단계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의 탐색(Exploration) 단계로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 단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광지의 경우 법적인 인허가 절차 진행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관광지 시행 단계이다. 이 단계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의 주민 개입(Involvement) 단계로 관광지 관련 시설 및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단계이며, 우리나라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행 공사 단계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발전(Development) 단계로 Butler의 발전단계와 동일하며, Polli and Cook의 성장단계(Growth Stage)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관광지의 경우 운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관광객수 변화율 기준으로 0.5%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네 번째 단계는 강화(Consolidation)단계로 Butler의 강화(Consolidation)와 Polli and Cook의 강화단계(Maturity Stage)와 동일하며, 우리나라 관광지의 경우 본격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관광객수 변화율 기준으로 0~0.5% 구간에 해당된다. 다섯 번째는 정체(Stagnation) 단계로 Butler의 정체(Stagnation), Polli and Cook의 정체단계(Stagnation Stage)와 동일하며, 우리나라 관광지의 경우, 방문객수가 최고점에 이르는 운영 단계라 할 수 있다. 관광객수 변화율 기준 -0.5~0%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여섯 번째는 쇠퇴(Decline) 단계로 Butler의 쇠퇴(Decline), Polli and Cook의 쇠퇴단계(Decline Stage)와 동일하며, 우리나라 관광지의 경우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운영단계라 할 수 있다. 관광객수 변화율 기준 -0.5% 이하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재활성화(Rejuvenation) 단계는 정체단계 또는 쇠퇴단계의 관광지에 일정부분 새로운 혁신이 도입되어, 방문객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 단계로 우리나라 관광지의 경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진 관광지 운영단계라 할 수 있다(Table 1 참조).

2.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 분석

연간방문객수 데이터 누락으로 분석하지 못한 관광지 16개소를 제외하고, 총 214개소의 관광지를 분석한 결과, 지정단계 관광지 5개소(전체 214개소 중 2.3%), 시행단계 관광지 49개소(22.9%), 발전단계 관광지 3개소(1.4%), 강화단계 관광지 69개소(32.2%), 정체단계 관광지 67개소(31.3%), 쇠퇴단계 관광지 16개소(7.5%), 재활성화단계 관광지 5개소(2.3%)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아직 조성되지 않았거나, 조성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관광지(지정 · 시행단계)가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발전단계, 강화단계에 있는 관광지가 33.6%, 정체단계, 쇠퇴단계에 있는 관광지가 3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지가 3분의 1이 넘는 비율의 관광지가 쇠퇴되었거나, 앞으로 쇠퇴에 이르는 정체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참조).

3. 관광지 자원유형별 수명주기 단계 분석

관광지 자원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분석된 214개 관광지 중 자연자원유형 관광지인 산악 관광지가 18개소(8.4%), 계곡/폭포 관광지가 21개소(9.8%), 하천/호수 관광지가 28개소(13.1%), 해안/해수욕장 관광지가 33개소(15.4%), 도서 관광지가 7개소(3.3%), 온천 관광지가 29개소(13.6%), 해양 관광지, 동식물자원 관광지가 각각 2개소(0.9%), 자연현상 관광지가 14개소(6.5%)로 분석되었다.

인문자원유형 관광지인 역사유적 관광지는 25개소(11.7%),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Butler's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Polli and Cook's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Development stage of domestic tourist area	Operational definition of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 Exploration: before the development of tourist area	-	· Undesignated or designated stage of tourist spo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Involvement: phased provision of relevant facilities and service	-	· Establishment of tourist spot construction plan · Initial enforcement stage(construction)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stage of tourist area	Growth stage	· Enforcement stage(construction and sale in lots) · Initial operation stage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growth slowdown stage	Maturity stage	· Operation stage of tourist area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 Stagnation: saturated condition	Stagnation stage	· Operation stage of tourist area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Decline: decrease of tourists	Decline stage	· Operation stage of tourist area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 Rejuvenation: re-increase stage of tourists	-	· Tourist area remodeling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Table 2. Analysis of the life cycle stage of domestic tourist area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 area (Ratio%)	Name of tourist area(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5 (2.3)	Yongho Seaside, Yeongam Baduk Theme Park, Sadeung, Hadong Mukgye(Cheonghakdong), Sacheon Bito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49 (22.9)	Gijang Doyechon, Yeongwol Spa, Jiktang, Hongcheon Spa, Daegwallyeong Eoheulli, Inje Auto Theme Park, Eodapsan, Yuhyeon Culture, Gumunso, Neulmeoni Fruits Land, Chungjuho Experience, Gyesan, Jecheon Spa, Songnisan Leisure, Gubyeongsan, Seodongyo History, Waemongmaeul, Yongyeon Lake, Cheonan Comprehensive Recreation, Gongju Culture, Anmyeondo, Chilgapsan Dorim Spa, Osu'Dog, Maisan Hoebong, Naejangsan Resort, Baekjegayo Jeongeupsa, Gimje Spa, Arirangmaeul, Korea Tea and Sound Culture Park, Jeongnamjin Usando-Jangjaedo, Sapo, Hoesangnaru, Ulleunggaecheoksa, Cheongdo Sinhwarang, Munsu, Sangri, Yecheon Samgang, Yeanhyeon, Cheongsong Juwangsan, Goryeong Burye, Jangmok, Geogadaegyo, Siran, Omongnae, Myosanbong, Ora, Sumang, Geumak, Gwakji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3 (1.4)	Dorimsa(0.70), Munjangdae Spa(0.94), Geumseo(38.45)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69 (32.2)	Haeundae(0.10), Yongmunsan(0.12), Soyosan(0.03), Sanjeong Lake(0.19), Imjingak(0.04), Chuncheonhoban(0.15), Gugokpokpo(0.03), Gossidonggul(0.21), Machatangwangchon(0.04), Donghae Chuam(0.25), Hwaamnyaksu(0.40), Auraji (0.01), Songjiho(0.10), Okkye(0.23), Jumunjin Beach(0.17), Cheoksan Spa(0.10), Osaek(0.11), Gwangdeok Valley(0.06), Yongdae(0.16), Cheondong(0.07), Ondal(0.21), Chungon Spa(0.07), Neungam Spa(0.33), Gyori(0.31), Geumwolbong(0.14), Square of Meeting(0.14), Suokjeong(0.19), Daecheon Beach(0.14), Muchangpo(0.10), Gudeurae(0.08), Asan Spa(0.23), Yedang(0.14), Deoksan Spa(0.17), Magoksa(0.14), Chunjangdae Beach(0.12), Ganwoldo(0.04), Namdang(0.09), Namwon (0.02), Eunpa(0.50), Geumgang Lake(0.02), Saseondae(0.19), Geumma(0.11), Ungpo(0.43), Wanggung Jewelry(0.17), Moaksan(0.09), Byeokgolje(0.11), Jangseong Lake(0.09), Honggildong Theme Park(0.24), Unjusa(0.14), Nokjin(0.08), Daegwang Beach(0.12), Bulgapsa(0.36), Haesinjangbogo(0.03), Dadeongnyaksu(0.06), Gyeongcheondae(0.04), Ulleungdo (0.06), Goraebul(0.28), Chisan(0.05), Seonbawi(0.48), Yecheon Spa(0.05), Danghangpo(0.03), Pyochungsa(0.12), Hapcheon-bojodaem(0.30), Mageumsan Spa(0.03), Nongwoljeong(0.10), Byeokgye(0.03), Bonggae Forest(0.46), Pyoseon(0.03), Jeju Stone Culture Park(0.06)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67 (31.3)	Taejongdae(−0.02), Seopori(−0.24), Manisan(−0.04), Daeseong(−0.39), Sanjang(−0.12), Hantangang(−0.30), Sudong (−0.21), Jangheung(−0.08), Mangsang Beach(−0.05), Sampo·Munam(−0.15), Hwajinpo(−0.08), Jangho Beach(−0.07), Samcheok Beach(−0.27), Palbongsan(−0.09), Yeongok Beach(−0.09), Deungmyeong(0.00), Ganhyeon(−0.09), Mitan Maha(−0.16), Darian(−0.03), Songho(−0.07), Mugeuk(−0.19), Janggye(−0.13), Neunggang(−0.03), KBS Jecheon Filming(−0.15), Goegang(−0.04), Sinjeong Lake(−0.14), Taejosan(−0.14), Mallipo(−0.02), Geumgang Estuary(0.00), Mireuksaji(−0.08), Uniram·Baniram(−0.14), Seokjeong Spa(−0.07), Wido(−0.06), Naju Lake(−0.15), Damnyang Lake(−0.12), Yeongsan Lake(−0.14), Seonggidong(−0.18), Mahan Culture(−0.33), Hwasun Spa(−0.08), Dogog Spa(−0.08), Hoedong(−0.40), Jirisan Spa(−0.13), Hoesan Lotus(−0.06), Sinjimyeongsasimni(−0.26), Beagam Spa(−0.10), Seongnyugul(−0.06), Gyeongsan Spa(−0.07), Ojeonnyaksu(−0.06), Jangsa Beach(−0.22), Yongam Spa (−0.07), Tapsan Spa(−0.02), Mungyeong Spa(−0.02), Sunheung(−0.05), Punggi Spa(−0.05), Homigot(−0.10), Hahoe(−0.02), Dosan Spa(−0.04), Bugok Spa(−0.11), Donam(−0.07), Hapcheon Lake(−0.10), Jungsan(−0.16), Suseungdae(−0.01), Gajo(−0.05), Songjeong(−0.26), Yongmeori(−0.07), Jeju Namwon(−0.11), Micheongul(−0.05)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6 (7.5)	Silleuksa(−0.76), Maengbang Beach(−0.50), Sokcho Beach(−5.09), Nanjido(−3.17), Gomnaru(−1.87), Magok Spa(−1.57), Banghwadong(−1.18), Usuyeong(−0.77), Ttangkkeut(−0.54), Yulpo Beach(−0.94), Taegudoyoji(−1.22), Gasansanseong(−1.19), Cheongdo Spa(−0.65), Pori(−1.35), Misungsan(−0.57), Sancheong Traditional Herbal(−1.45)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5 (2.3)	Baegun Valley(0.34), Gongneung(0.19), Cheongpyeongsa(0.04), Mureung Valley(0.04), Goseokjeong(0.05)
Total	214	

문화재자원 관광지는 13개소(6.1%), 지역산업자원 관광지는 10개소(4.7%), 생활현장자원 관광지는 4개소(1.9%), 유원지/체육시설는 8개소(3.8%)로 분석되었다(Table 3 참조).

관광지 자원유형별로 구분하여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살펴보면, 산악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18개소 중 시행단계 6개소(33.3%), 발전단계 1개소(5.6%), 강화단계 5개소(27.8%), 정체단계 5개소(27.8%), 쇠퇴단계 1개소(5.6%)로 분석되었다(Table 4 참조).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지정된 관광지 대다수는 시행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지정된 관광지 대다수는 강화단계, 정체단계,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화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관광객 수 변화비율이 낮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 또는 쇠퇴단계 관광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에 따른 관광지별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혁신 요소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행단계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자원 관광지는 현재와 미래의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Table 3. Tourism resources by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analysis

Type of tourist area resource		Total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Ratio%)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Ratio%)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Ratio%)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Ratio%)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Ratio%)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Ratio%)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Ratio%)
Natural resources	Mountain	18	-	6 (33.3)	1 (5.6)	5 (27.8)	5 (27.8)	1 (5.6)	-
	Valley/waterfall	21	-	3 (14.3)	1 (4.8)	8 (38.1)	6 (28.6)	1 (4.8)	2 (9.5)
	River/lake	28	-	4 (14.3)	-	13 (46.4)	11 (39.3)	-	-
	Seaside/beach	33	2 (6.1)	4 (12.1)	-	10 (30.3)	14 (42.4)	3 (9.1)	-
	Island	7	1 (14.3)	2 (28.6)	-	2 (28.6)	1 (14.3)	1 (14.3)	-
	Hot spring	29	-	6 (20.7)	1 (3.4)	7 (24.1)	13 (44.8)	2 (6.9)	-
	The sea	2	-	-	-	-	1 (50.0)	1 (50.0)	-
	Natural phenomenon	14	-	1 (7.1)	-	6 (42.9)	7 (50.0)	-	-
	Animal/plant	2	-	-	-	1 (50.0)	1 (50.0)	-	-
Humanities resources	Historical remains	25	-	11 (44.0)	-	6 (24.0)	3 (12.0)	4 (16.0)	1 (4.0)
	Cultural asset	13	-	-	-	7 (53.8)	3 (23.1)	1 (7.7)	2 (15.4)
	Local industry	10	-	4 (40.0)	-	3 (30.0)	2 (20.0)	1 (10.0)	-
	Living site	4	2 (50.0)	-	-	1 (25.0)	-	1 (25.0)	-
	Recreation area/ sports facility	8	-	8 (100.0)	-	-	-	-	-
Total		214	5	49	3	69	66	17	5

Table 4. Life cycle stage of mountain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Mountain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6 (33.3)	Daegwallyeong Eoheulli, Songnisan Leisure, Gubyeongsan, Naejangsan Resort, Sangri, Cheongsong Juwangsan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1 (5.6)	Geumseo(38.45)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5 (27.8)	Yongmunsan(0.12), Soyosan(0.03), Yongdae(0.16), Geumwolbong(0.14), Moaksan(0.09)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5 (27.8)	Manisan(−0.04), Sanjang(−0.12), Palbongsan(−0.09), Taejosan(−0.14), Jungsan(−0.16)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 (5.6)	Misungsan(−0.57)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18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곡/폭포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21개소 중 시행단계 3개소(14.3%), 발전단계 1개소(4.8%), 강화단계 8개소(38.1%), 정체단계 6개소(28.6%), 쇠퇴단계 1개소(4.8%), 재활성화단계 2개소(9.5%)로 분석되었다(Table 5 참조).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지정된 관광지의 경우 시행단계 또는 발전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90년대 초반 이전에 지정된 관광지의 경우 강화단계, 정체단계,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백운계곡 관광지와 무릉계곡 관광지는 한번 쇠퇴단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재활성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화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관광객 수 변화비율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정체단계로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체단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성화단계에 진입한 사례 관광지를 분석하여 정체, 쇠퇴단계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재활성화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호수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28개소 중 시행단계 4개소(14.3%), 강화단계 13개소(46.4%), 정체단계 11개소(39.3%)로 분석되었다(Table 6 참조).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80년대 후반 지정된 관광지가 아직 시행단계에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정된 관광지는 강화단계와 정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천/호수 자원유형 관광지는 사업기간에 따라 쇠퇴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원의 변화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쇠퇴단계에 이른 관광지가 없는 것은 자원의 매력도가 꾸준하여 관광객이 대상지를 꾸준히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정체단계에 이른 관광지는

Table 5. Life cycle stage of valley/waterfall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Valley/waterfall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3 (14.3)	Jiktang, Eodapsan, Gumunso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1 (4.8)	Dorimsa(0.70)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8 (38.1)	Gugokpokpo(0.03), Hwaamnyaksu(0.40), Osaek(0.11), Gwangdeok Valley(0.06), Dadeongnyaksu(0.06), Chisan(0.05), Nongwoljeong(0.10), Byeokgye(0.03)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6 (28.6)	Sudong(−0.21), Jangheung(−0.08), Ganhyeon(−0.09), Darian(−0.03), Ojeonnyaksu(−0.06), Suseungdae(−0.01)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 (4.8)	Banghwadong(−1.18)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2 (9.5)	Baegun Valley(0.34), Mureung Valley(0.04)
Total	21	

Table 6. Life cycle stage of river/lake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River/lake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4 (14.3)	Gyesan, Yongyeon Lake, Yecheon Samgang, Omongnae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13 (46.4)	Sanjeong Lake(0.19), Chuncheonhoban(0.15), Songjiho(0.10), Gyori(0.31), Square of Meeting (0.14), Gudeurae(0.08), Yedang(0.14), Eunpa(0.50), Geumgang Lake(0.02), Ungpo(0.43), Byeokgolje(0.11), Jangseong Lake(0.09), Hapcheonbojodaem(0.30)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1 (39.3)	Daeseong(−0.39), Hantangang(−0.30), Songho(−0.07), Janggye(−0.13), Neunggang(−0.03), Goegang (−0.04), Sinjeong Lake(−0.14), Naju Lake(−0.15), Damnyang Lake(−0.12), Yeongsan Lake(−0.14), Hapcheon Lake(−0.10)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28	

새로운 혁신 요소를 도입하여 쇠퇴단계 진입을 지연하거나, 재활성화단계로 이를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해수욕장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33개소 중 지정단계 2개소(6.1%), 시행단계 4개소(12.1%), 강화단계 10개소(30.3%), 정체단계 14개소(42.4%), 쇠퇴단계 3개소(9.1%)로 분석되었다(Table 7 참조). 정체단계와 쇠퇴단계의 관광지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정단계와 시행단계의 관광지는 대부분 2000년대에 지정된 관광지이나, 일부 90년대 지정된 관광지(안면도, 장목)가 아직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화단계에 있는 관광지는 대부분 80년대에서 90년대에 지정된 관광지이며, 정체단계에 있는 관광지는 대부분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지정된 관광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쇠퇴단계에 이른 관광지는 맹방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안/해수욕장 자원유형 관광지는 정체단계와 쇠퇴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관광지가 50%가 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지정 및 시행단계 관광지가 사업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관광지중 일부 관광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광 요소가 유입되거나,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지연시키고 있는 관광지가 있는 반면, 급속도로 쇠퇴단계로 진입하고 있거나, 쇠퇴단계에 도달해 있는 관광지가 있어 이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

Table 7. Life cycle stage of seaside/beach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Seaside/beach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2 (6.1)	Yongho Seaside, Sadeung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4 (12.1)	Anmyeondo, Jangmok, Siran, Gwakji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10 (30.3)	Haeundae(0.10), Donghae Chuam(0.25), Okkye(0.23), Jumunjin Beach(0.17), Daecheon Beach (0.14), Muchangpo(0.10), Chunjangdae Beach(0.12), Namdang(0.09), Daegwang Beach(0.12), Goraebul(0.28)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4 (42.4)	Taejongdae(−0.02), Seopori(−0.24), Mangsang Beach(−0.05), Sampo · Munam(−0.15), Hwajinpo (−0.08), Jangho Beach(−0.07), Samcheok Beach(−0.27), Yeongok Beach(−0.09), Deungmyeong(0.00), Mallipo(−0.02), Sinjimyeongsasimni(−0.26), Jangsa Beach(−0.22), Songjeong (−0.26), Jeju Namwon(−0.11)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3 (9.1)	Maengbang Beach(−0.50), Sokcho Beach(−5.09), Yulpo Beach(−0.94)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33	

Table 8. Life cycle stage of island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Island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 (14.3)	Sacheon Bito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2 (28.6)	Jeongnamjin Usando-Jangjaedo, Geogadaegyo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2 (28.6)	Ganwoldo(0.04), Ulleungdo(0.06)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 (14.3)	Wido(−0.06)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 (14.3)	Nanjido(−3.17)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7	

정이다.

도서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7개소 중 지정단계 1개소(14.3%), 시행단계 2개소(28.6%), 강화단계 2개소(28.6%), 정체단계 1개소(14.3%), 쇠퇴단계 1개소(14.3%)로 분석되었다(Table 8 참조). 도서 자원유형 관광지의 경우, 분석을 위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한 점은 2000년대 지정된 난지도 관광지의 경우, 빠르게 쇠퇴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쇠퇴단계에 이른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온천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29개소 중 시행단계 6개소(20.7%), 발전단계 1개소(3.4%), 강화단계 7개소(24.1%), 정체단계 13개소(44.8%), 쇠퇴단계 2개소(6.9%)로 분석되었다(Table 9 참조). 온천 자원유형 관광지의 경우, 정체, 쇠퇴단계 관광지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자원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행단계의 관광지들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천 자원유형 관광지의 경우, 대부분 지정된지 10년 이상된 관광지로 90년대 지정된 관광지 중에 아직 시행단계에 있는 관광지가 다수 있으며,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정된 관광지가 강화단계, 정체단계, 쇠퇴단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사업기간과 쇠퇴단계의 속도와는 관계성이 없어 보인다. 많은 수의 관광지가 정체,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온천 자원의 매력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온천 자원의 매력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요소 도입이 시급하고, 관광지별 쇠퇴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2개소 중 정체단계 1개소(50.0%), 쇠퇴단계 1개소(50.0%)로 분석되었다(Table 10 참조). 해양 자원유형 관광지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관광자원유형에 따른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례 모두 정체 또는 쇠퇴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과

Table 9. Life cycle stage of hot spring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Hot spring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6 (20.7)	Yeongwol Spa, Hongcheon Spa, Jecheon Spa, Chilgapsan Dorim Spa, Maisan Hoebong, Gimje Spa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1 (3.4)	Munjangdae Spa(0.94)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7 (24.1)	Cheoksan Spa(0.10), Chungon Spa(0.07), Neungam Spa(0.33), Asan Spa(0.23), Deoksan Spa(0.17), Yecheon Spa(0.05), Mageumsan Spa(0.03)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3 (44.8)	Seokjeong Spa(−0.07), Hwasun Spa(−0.08), Dogog Spa(−0.08), Jirisan Spa(−0.13), Beagam Spa(−0.10), Gyeongsan Spa(−0.07), Yongam Spa(−0.07), Tapsan Spa(−0.02), Mungyeong Spa(−0.02), Punggi Spa(−0.05), Dosan Spa(−0.04), Bugok Spa(−0.11), Gajo(−0.05)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2 (6.9)	Magok Spa(−1.57), Cheongdo Spa(−0.65)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29	

Table 10. Life cycle stage of the sea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The sea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 (50.0)	Donam(−0.07)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 (50.0)	Ttangkkeut(−0.54)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2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현상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14개소 중 시행단계 1개소(7.1%), 강화단계 6개소(42.9%), 정체단계 7개소(50.0%)로 분석되었다(Table 11 참조).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 지정된 왜목마을만 시행단계에 있고, 나머지 관광지들은 강화단계와 정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왜목마을과 제주돌문화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광지는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지정된 관광지로 강화단계와 정체단계에 유사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현상 자원유형 관광지는 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하거나, 조성 중인 관광지의 사례는 적게 나타났으며, 정체단계에 있는 관광지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해 자원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급격히 쇠퇴단계로 진행되는 단점이 있어, 새로운 관광 혁신 요소의 투입으로 재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식물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2개소 중 강화단계 1개소(50.0%), 정체단계 1개소(50.0%)로 분석되었다(Table 12 참조). 동식물 자원유형 관광지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관광 자원유형에 따른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정 관광지 이외에 동식물 자원유형 관광목적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자원에 따른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역사유적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25개소 중 시행단계 11개소(44.0%), 강화단계 6개소(24.0%), 정체단계 3개소(12.0%), 쇠퇴단계 4개소(16.0%), 재활성화단계 1개소(4.0%)로 분석되었다(Table 13 참조).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시행단계에 있는 관광지는 대부분 2000년에서 2010년대 지정된 관광지가 대다수이며, 강화단계에 있는 관광지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지정된 관광지가 분포하고 있다. 정체단계와 쇠퇴단계에 있는 관광지는 80년대에 지정된 관광지가 대다수이며, 70년대에 지정된 공릉관광지는 재활성화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사유적 자원유형 관광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관광지 사례수가 많아 시행단계 관광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기간이 오래될수록 쇠퇴단계로의 진행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시

Table 11. Life cycle stage of natural phenomenon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Natural phenomenon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1 (7.1)	Waemongmaeul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6 (42.9)	Gossidonggul(0.21), Cheondong(0.07), Saseondae(0.19), Gyeongcheondae(0.04), Seonbawi(0.48), Jeju Stone Culture Park(0.06)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7 (50.0)	Homigot(−0.10), Mitan Maha(−0.16), Uniram · Baniram(−0.14), Hoedong(−0.40), Seongnyugul(−0.06), Yongmeori(−0.07), Micheongul(−0.05)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14	

Table 12. Life cycle stage of animal/plant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Animal/plant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1 (50.0)	Bonggae Forest(0.46)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 (50.0)	Hoesan Lotus(−0.06)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2	

간이 지날수록 관광지의 쇠퇴 정도도 강해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관광객 유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재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13개소 중 강화단계 7개소(53.8%), 정체단계 3개소(23.1%), 쇠퇴단계 1개소(7.7%), 재활성화단계 2개소(15.4%)로 분석되었다(Table 14 참조).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강화단계에 있는 관광지는 대부분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관광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정체, 쇠퇴, 재활성화단계 관광지는 7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정된 관광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재 자원유형 관광지는 최근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 추진 중인 관광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영 중인 관광지도 강화단계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정된 지 시간이 흐른 관광지의 경우, 쇠퇴단계에 도달해 있거나(신륵사), 쇠퇴단계에서 재활성화단계로 전환된 관광지(청평사, 고석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재 자원유형 관광지는 관광지 특성상 관광객의 변화 비율이 낮게 나타나서 대부분의 관광지가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새로운 혁신의 도입보다는 현재의 자원의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광지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산업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10개소 중 시행단계 4개소(40.0%), 강화단계 3개소(30.0%), 정체단계 2개소(20.0%), 쇠퇴단계 1개소(10.0%)로 분석되었다(Table 15 참조).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관광지가 2000년대 이후 지정되었으며, 시행단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산업 자원유형 관광지는 지역 고유의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홍보,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로 비교적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관광지가 아니나, 일부 관광지의 경우 1회성 또는 단기 행사 목적의 관광지로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빠르게 쇠퇴단계(산청 전통한방휴양, KBS 제천 촬영장)로 진행

Table 13. Life cycle stage of historical remains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Historical remains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11 (44.0)	Yuhyeon Culture, Seodongyo History, Gongju Culture, Osu'Dog, Baekjegayo Jeongeupsa, Arirang-maeul, Hoesangnaru, Ulleunggaecheoksa, Cheongdo Sinhwarang, Munsu, Yeanhyeon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6 (24.0)	Imjingak(0.04), Ondal(0.21), Geumma(0.11), Honggildong Theme Park(0.24), Nokjin(0.08), Danghangpo(0.03)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3 (12.0)	Mugeuk(−0.19), Seonggidong(−0.18), Mahan Culture(−0.33)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4 (16.0)	Gomnaru(−1.87), Usuyeong(−0.77), Taegudoyoji(−1.22), Gasansanseong(−1.19)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1 (4.0)	Gongneung(0.19)
Total	25	

Table 14. Life cycle stage of cultural asset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Cultural asset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7 (53.8)	Suokjeong(0.19), Magoksa(0.14), Namwon(0.02), Unjusa(0.14), Bulgapsa(0.36), Pyochungsa(0.12), Pyoseon(0.03)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3 (23.1)	Mireuksaji(−0.08), Sunheung(−0.05), Hahoe(−0.02)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 (7.7)	Silleuksa(−0.76)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2 (15.4)	Cheongpyeongsa(0.04), Goseokjeong(0.05)
Total	13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현장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4개소 중 지정단계 2개소(50.0%), 강화단계 1개소(25.0%), 쇠퇴단계 1개소(25.0%)로 분석되었다(Table 16 참조). 생활현장 자원유형 관광지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관광 자원유형에 따른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지정단계, 강화단계, 쇠퇴단계 관광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자원에 대한 매력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특성상 자원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광지로 조성된 사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원지/체육시설 자원유형 관광지는 총 8개소 모두 시행단

Table 15. Life cycle stage of local industry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Local industry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4 (40.0)	Gijang Doyechon, Inje Auto Theme Park, Neulmeoni Fruits Land, Korea Tea and Sound Culture Park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3 (30.0)	Machatangwangchon(0.04), Wanggung Jewelry(0.17), Haesinjangbogo(0.03)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2 (20.0)	KBS Jecheon Filming(−0.15), Geumgang Estuary(0.00)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 (10.0)	Sancheong Traditional Herbal(−1.45)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10	

Table 16. Life cycle stage of living site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Living site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2 (50.0)	Yeongam Baduk Theme Park, Hadong Mukgye(Cheonghakdong)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1 (25.0)	Auraji(0.01)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1 (25.0)	Pori(−1.35)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4	

Table 17. Life cycle stage of recreation area/sports facility tourism resource type

Tourist area life cycle stage	Number of tourists area (Ratio%)	Recreation area/sports facility tourism resource type (Average of change rat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esi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Enforcement stage of tourist area	8 (100.0)	Chungjuho Experience, Cheonan Comprehensive Recreation, Ora, Geumak, Sapo, Goryeong Burye, Myosanbong, Sumang
Development stage of tourist area	-	
Consolidation stage of tourist area	-	
Stag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Decline stage of tourist area	-	
Rejuvenation stage of tourist area	-	
Total	8	

계로 분석되었다(Table 17 참조). 유원지/체육시설 자원유형 관광지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관광자원에 따른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관광지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민자 유치 등의 사업비 조달상의 문제가 많아 지정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 시행단계에 머물러 있는 관광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대다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로 이루어진 지정관광지가 노후화로 인해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Kim, 2013), 우리나라 지정관광지의 현재 쇠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지정관광지를 대상으로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의 수명주기단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분석된 국내 관광지 214개소중 지정단계 관광지 2.3%(5개소), 시행단계 관광지 22.9%(49개소), 발전단계 관광지 1.4%(3개소), 강화단계 관광지 32.2%(69개소), 정체단계 관광지 31.3%(67개소), 쇠퇴단계 관광지 7.4%(16개소), 재활성화단계 관광지 2.3%(5개소)로 분석되었다. 전체 관광지중 강화단계 관광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체단계와 쇠퇴단계 관광지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관광지들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체단계, 쇠퇴단계의 관광지는 Jang(2000)의 연구에서 처럼 관광지내에 새로운 혁신이 추가되지 않으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점차 쇠락하여 슬럼화되며, 이는 관광지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유형별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해 보면, 지정・시행단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관광 자원유형은 유원지/체육시설(100%), 생활현장(50.0%), 역사유적(44.0%), 도서(42.9%)로 나타났으며, 발전・강화단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관광 자원유형은 문화재(53.8%), 자연현상(50.0%), 하천/호수(46.4%), 계곡/폭포(42.9%)로 나타났다. 정체・쇠퇴단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관광 자원유형은 온천(51.7%), 해안/해수욕장(51.5%)으로 분석되었다. 지정・시행단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관광 자원유형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광지로서, 이로 인한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체・쇠퇴단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관광 자원유형은 시설의 노후화와 관광자원의 매력성 저하, 계절의 편중성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시행단계의 관광지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 아이템의 변경, 사업시행 주체의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발전・강화단계의 관광지는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강점요인들을 파악하여 강점요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 관광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체・쇠퇴관광지는 새로운 혁신이 도입되지 않으며,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저하되고 슬럼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혁신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쇠퇴관광지의 새로운 혁신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정체・쇠퇴하고 있는 관광지의 쇠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쇠퇴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관광지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관광 트렌드 등의 외적 요인까지 분석하여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정체・쇠퇴원인이 도출되면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관광지의 구성요소인 관광자원, 물리적인 편의시설, 관광객 프로그램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쇠퇴관광지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주체, 지역주민, 공공기관이 모두가 관광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광자원의 보전과 새로운 관광시설의 투자, 원활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국 관광지의 연간방문객수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현상학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 더해 관광객의 지출액, 관광사업체의 매상고 및 이윤 등의 변화 등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관광지별로 정밀한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쇠퇴단계에 도달한 관광지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혁신 도입을 통해 관광지의 재활성화 방안 마련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 분석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 여가활동의 대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1. Butler, R. W.(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 5-12.
2. Butler, R. W.(1985) Evolution of tourism in the Scottish Highland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371-391.
3. Cho, S. H and K. J. Lee(1998) The life cycle of tour destination hot spring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4(2): 165-182.
4. Choy, D. J.(1992) Life cycle models for pacific Island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3): 26-31.
5. Cooper, C.(1994) The Destination Life Cycle: an update, In Seaton

(eds.), 340-346.
6. Cooper, C. and S. Jackson(1989) Destination life cycle: The isle of man case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377-398.
7. Cromptom, J. L. and D. M. Hensarling(1987) Some suggested implication of the product life cycle for public recreation and agency managers. Leisure Science 1(3): 295-296.
8. Goncalves, V. F. D. C. and P. M. R. Aguas(1997) The concept of life cycle: An application to the tourist produc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2): 12-33.
9. Haywood, K. M.(1986) Can the tourist area life cycle be made operational?. Tourism Management 7(3): 154-167.
10. Haywood, K. M.(1998) Economic Business Cycles and the Tourism Life-Cycle Concept, 273-284.
11. Jang, E. Y.(2000) The Extension of the Destination Life Cycle Theory: The Case of the Seoul Grand Park.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12. Kim, H. J.(2013) Propulsive direction of the tourist area regeneration policy, Korea tourism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52: 71-79.
13. Kim, S. Y.(1993) A study on the tourism development of Cheju province based upon tourist area life cycle. Journal of Tourism Geography 3: 85-104.
14. Korea Tourism Organization(2014)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Manual 2014.
15. Lee, Y. H.(2000) The Building of Tourism Destination Area Life Cycle Model: A Case Study of Suanbo Area, Korea.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16. Lundtorp, S. and S. Wanhill(2001) The resort lifecycle theory: Generating processes and esti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947-964.
17. Meywer-Arendt, K. J.(1985) The grand isle, Louisiana resort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449-465.
18. Oppermann, M.(1998) What is new with the resort cycle?. Tourism Management 19(2): 179-182.
19. Park, J. M.(2003) The Analysis of Lifecycle of Destination and the Strategies of Growth Management: the Case of Jeju Island.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20. Polli, R. and V. Cook(1969) Validity of the product life cycle. The Journal of Business 42(4): 385-400.
21. www.mcst.go.kr
22. www.tour.go.kr

Received : 31 August, 2015
Revised : 17 November, 2015 (1st)
Accepted : 17 November, 2015
4인익명 심사필